안동 참의공 종친회 정기총회

3월18일 안동시 풍천면 갈곡동 참의공 종택 시습재에서 權大直고문과 權正七회장 등 남녀 종원 백이십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 權大中총무사회로 내빈소개가 있었다.

동해연안개발공사본부장 權寧吉, 安東市의원 권기락, 권남희 의원, 전서울청년회장 권기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대중 총무의 개회선언,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묘 망배, 참의공묘소망배, 회원상견례가 있었으며 권정철회장은 인사말씀에서 입향조이신 참의공 이후 약600여년간 열선조님들의 혁혁한 공훈이 있었으니 우리 모두는 숭조보본으로 자손된 도리

를 다하자고 강조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축사 및 격려사는 權錦萬 종손이 간단히 하였으며 이어진 경과보고에서

1. 先祖顯彰事業 -문집(文集)발간 仙原遺蹟山庄月을 위주로 한 내용
2. 屛谿先朝學問과 思想-學術大會일정 5월중 관철예정
3. 今年度回甲맞는 子孫14名이 특별참여
4. 서울거주 玉井會員25名 전원참석하였음

12시 30분경 폐회선언 후 정담과 함께 오찬을 함께나누고 13시에 산회하였다.

〈안동 권력세기자〉

안동권씨 동정공파 종회 정기총회

3월26일 오전11시에서 태화동 안동권씨 종친회관에서 권도혁 회장을 비롯하여 50인의 남녀종원이 참석한 가운데 권중익 사무국장 사회로 상읍례에 이어 국민의례, 시조묘망배 및 묵념 후 회장은 북히 동정공파족들께서는 각별히 신경써서 조상들을 숭조보본해야 하고 파죽끼리 단합의 제일선에서 다정다감한 동정공파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인사말씀을 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권영동 감사의 감사보고, 권중익 사무국장의 결산 및 경과보고가 있었다. 11시40분 재차 단상에 나가 동정공파 재산관리운영규약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87년 9월22일에 있었던 1조에서5조까지의 약정서(공동관리규약)는 지금도 유효하며 그 대상물은 1. 송현동 16개 조상전답을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소상하게 밝혔으며

2. 제6조 문서보전(1987년 9월22일 작성한 약정서).

안동권씨동서부문중재산 합필문서(2014년 10월 작성)

6조3항 안동권씨동정공파종회장 권도혁편 동정비망록 등 12조

본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통례에 의한 문중관습에 의한다.

정오가 되자 총회를 종료하고 태화동 서부시장내 장자방에서 50여명의 가족들은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13시경 산회하였다.

〈안동 권력세기자〉

검교파 성주종회안동권씨 (安東權氏)

1. 관향(貫鄕)의 유래(由來)

권씨 시조는 신라 제 13대 미추왕(味鄒王) (262~284)의 후예인 김행(金幸)이다.

행(幸)이 고창(古昌) (안동부 고명(古名))태수(太守)로 있던 920년(신라경순왕 3, 고려태조 12) 후백제 견훤(甄萱)이 경주와 대구를 노략질한 여세를 몰아 안동지역에 침입하였다. 이때 행(幸)이 궐연히 일어나 견훤군을 물리쳤다.

이에 고려태조는 그의 병기달권(炳幾達權)한 큰 공훈을 찬양하여 삼한벽상철신삼중대광(三韓壁上匡正三重大匡)의 작위와 함께 성을 권(權)으로 하사(下賜)하는 한편 고창군을 안동부로 승격시키는 동시에 부를 식읍(食邑)으로 지급하였다.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2. 이거(移居)와 분파(分派)

1450년(세조 2)에 성주 용암 두리실(현(現) 본리2리, 일명 두릉(杜陵))로 낙향한 개기시조(開基始祖)는 광안도(平安道) 가산군수(嘉山郡守) 영아헌(詠野軒) 권유겸(權有儉)이다. 공의 후예는 안동권씨(安東權氏) 15파(派)중 하나인 검교파(檢校派)다.

파시조(派始祖) 검교대장군(檢校大將軍) 척(俔)은 행(幸)의 10세손(世孫)이다. 14세손(世孫) 사복재(思復齋) 정(淀)은 조선왕조가 들어섬에 따라 전왕조의 좌사간(左司諫)벼슬을 버리고 안동(安東) 도목촌(桃木村)(현(現) 안동 예안면 기사리)에 은둔하였다. 이곳에 반구정(返舊亭)을 짓고 우거하면서 예제자(曳弟子) 등에게 세전충효(世傳忠孝)의 유훈(遺訓)을 남겼다. 조선 태조는 세 번이나 승지, 도승지 등 벼슬을 내렸으나 불응하므로 세인들은 이곳을 기사리(棄仕里)라 일컬어지기에 이르렀다.

군수(郡守) 유겸(有儉)은 정(淀)의 삼자(三子)인 율산 및 철원부사를 역임한 서(曙)의 장자(長子)이다. 그는 1420년(세종 3) 사마시(司馬試)와 문과(文科)에 급제하였다. 여러 내직을 겪은 다음 가산군지사(嘉山郡知事)로 재임하던 중 세조의 왕위찬탈을 당하였다. 정종(鄭悰), 민신(閔伸), 권자홍(權子弘) 등과 더불어 은밀히 단종복위운동을 벌이다 탄로되어 세 사람은 죽음의 화를 입고, 공(公)은 이곳으로 락남(落南), 두릉(杜陵)에 영모재(永慕齋)를 짓고 도학(道學)에 전념하면서 세전충효(世傳忠孝)의 유훈을 받들었다. (유허비 및 안동권씨세보)

영아헌(詠野軒)의 후예는 오늘날 크게 3계파와 그 지파로 나뉘어진다. 그의 증손(曾孫) 중추부사(中樞府事) 적(績)의 자(子) 송오(松塢) 응일(應壹)(증 이조참의)은 삼자(三子)를 두었다.

● 장(長)은 수백당(修白堂) (공조참의)

● 차(次)는 성강(星岡) 왕록(王錄) (첨지(僉知)나 중추부사(中樞府事))

● 계(季)는 양진당(養眞堂) (공랑주부직장(工郎主簿直長))이다.

삼형제(三兄弟)의 후예들을 각각 백파(伯派), 중파(仲派), 계파(季派)라고도 하고, 이호를 따서 수백당, 성강공 그리고 양진당파라고도 일컬어진다. 월항면(月恒面) 장산리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권씨(權氏)는 성강공과 양진당의 후예다.

한편 영아헌(詠野軒)의 둘째 손자 수중(守中)(행군수)의 후예는 용암면(龍岩面) 문명리와 그 원근에 살고 있으며, 수중(守中)의 여(女) 는 성종왕자이성군(成宗王子利城君) 관(悺)이다. 영아헌(詠野軒)의 셋째손자 수용(守庸)(참봉)의 후예는 안동(安東) 구담(九潭)에 살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안동권씨세보 (e뮤지엄, 국립중앙박물관)

부산장년회, 청년회 새 집행부 출범

안동 권씨 부산장년회(회장 權泰植)와 부산청년회(회장 權甲守)는 최근 정기총회를 갖고 새 집행부를 출범하였다. 장년회는 도영(度榮) 회장의 임기가 끝나 신임 태식(泰植) 회장이 취임하였으며, 청년회도 태현(泰賢)회장이 물러나고 새롭게 갑수(甲守) 회장이 지휘봉을 잡았다.

부산장년회는 지난 4월 12일 저녁 연산동 해암뷔페에서 제16차 정기총회 및 제8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충렬 색소폰합주단'의 '권문의 노래' 연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도영(度榮) 회장은 이임사를 통하여 "임기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장년회 고문과 임원진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2년의 임기 동안 부족한 업적도 없이 물러나 송구하다."며 "후임 태식 회장님은 인품이나 지도력, 경험 모두가 훌륭한 분으로 장년회의 큰 발전을 이룰 분"이라고 소개하고 "회원 모두의 능동적인 참여와 솔선수범"을 당부하였다.

제9대 태식(泰植) 회장도 취임사에서 "날씨도 봄꽃들도 오늘 우리 장년회를 축복하는 것 같다."고 서두를 꺼낸 뒤 "회장 자리가 엄광스럽기도 하지만 종친회의 중추인 장년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라며 "전임 도영 회장께서 먼 길을 한걸음에 오가며 클린 열정"을 본받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리고 "부산 청, 장년회를 발기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회원 확대 운동부터 전개"할 각오를 밝히면서 "종사를 위하여 전 회원이 다시 출발한다는 심정으로 동참하고 매진해 주기"를 호소하고, 주변의 격려와 지원도 주문하였다.

이어진 격려사에서 영호(英鎬) 부산종친회 회장은 이·취임 축하와 함께 장년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역대 회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특히 도영 회장의 모범적인 활동에 감명이 깊다며 앞으로도 장년회가 신임 태식 회장을 중심으로 종친회 동량(棟梁)이 되고 버팀목이 되도록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상(吉相)명예회장도 도영 회장과 전임 임원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종친 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보다 단합임을 강조하고, 단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정이 있고, 진정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한편 부산청년회도 지난 2월 24일 서면 골든뷰 뷔페에서 제5차 정기총회를 갖고 새 집행부를 출범하였다. 태현(泰賢) 회장은 이임사에서 "청년회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내고, 단합대회와 유적지 답사를 되살렸으며, 대구 청장년체전에 출전한 일 등"을 상기하고, "특히 2019년 안동권씨 전국청장년 체전을 부산에 유치한 것이 값회가 새롭다."며 "새로이 돋는 해를 중심으로 청년회가 더 굳게 뭉쳐 권문의 대사를 잘 치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임 갑수(甲守) 회장도 취임사에서 "훌륭한 선배들이 이룩한 청년회의 전통을 잘 이어갈지 회장직의 영예보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2019년 부산 전국청장년체전 같은 산적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종친회와 각급 단체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도편달을 부탁하였다.

격려사에 나선 영호(英鎬) 부산종친회장은 과도기를 잘 이끌어 준 태현 회장을 치하하고, 중책을 맡아 준 신임 갑수 회장에게도 축하와 함께 고맙다며 특히 2019년 전국청장년체전을 계기로 부산종친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청년회 번영의 기틀이 되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날 정기총회 마무리는 새터민 공연단과 함께 참석한 종친 모두가 어울려 노래와 춤으로 한바탕 잔치 마당을 펼쳐 흥겨운 저녁 한 때를 보냈다.

〈부산종친회 사무국장 권재영〉

友鄕稧 春享祭 奉行

정유년(丁酉年) 4월 14일(음력 3월 18일) 안동시 상곡동 우향사(友鄕祠)에서 우향계원(友鄕稧員)이었던 5개 문중(門中)인 <안동권씨(安東權氏), 고성이씨(固城李氏), 흥해배씨(興海裵氏), 영양남씨(英陽南氏), 안강노씨(安康盧氏)> 등 후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향제(春鄕祭)를 봉행(奉行)하였다.

이날 참제(參祭) 분정(分定)은 초한관(初獻官) 노채균(盧彩均), 아헌관(亞獻官) 이덕승(李德承), 종헌관(終獻官) 권기호(權奇浩), 축(祝) 노영환(盧永煥), 찬자(贊者) 배중희(裵重熙)가 각각 담당하여 엄숙하게 진행하였다.

춘향제례(春享祭禮)를 약 2시간에 걸쳐 마치고 우향각(友鄕閣)으로 자리를 옮겨 우향각 마루와 앞마당 잔디밭에서 음복례(飮福禮)를 하였다. 헌관(獻官)과 제관(祭官)들은 우향각 큰방과 마루에서 참제원(參祭員)들은 잔디밭에 임시로 설치한 부스에서 소고기국밥으로 점심을 먹으며 환담(歡談)을 나누다가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헤어졌다.

해마다 재례(祭禮) 주관(主管)은 5개 문중(門中)이 윤번제(輪番制)로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안강노씨가 주관하였으며 내년에는 안동권씨가 주관한다.

지금으로부터 539년전 조선 성종 9년(1478)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우향계(友鄕稧)를 기념하고 창립계원 13명의 위패(位牌)를 모시기 위해 지난 2004년과 2006년에 건립한 각(閣)과 사당(祠堂)이 지금의 자리에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선비들의 계회(稧會)로 서로에게 덕업(德業)을 권하고 친목(親睦)을 도모(圖謀)하고 풍화(風化)를 밝히기 위해 결성되었다.

세종(世宗) 때 좌의정(左議政)을 역임한 고성이씨(固城李氏)인 이원(李原)의 아들 이증(李增)이 안동에 낙향하여 안동권씨 3명, 영양남씨 4명, 흥해배씨 4명, 안강노씨 1명 등 13명이 우향계를 조직하여 계첩(稧帖)을 하나씩 나누어 가진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 당시 어지러운 사회상(社會相)을 바로 잡고 생활의 규제를 담은 계안을 만들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당시 조정의 원로이자 문장가인 서거정(徐居正)이 장편의 7언(言) 고시(古詩)를 지어 축하(祝賀)하기도 하였다.

〈보도부장 권영건〉

杏洲紀功祠 春享祭

2017년4월11일(음3월15일)10시30분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紀功祠기공사(행주서원)에서는 宣武功臣1等忠莊公 선무원종공신1등충장공 權慄권율都元帥 도원수를 주벽으로 宣武原從功臣1等七道兵馬節都士氣도병마절도사 宣祖時선거이 宣武功臣3等선무공신3등扈聖將 호성장)通政判尹한성판윤僉中樞府使영부사 趙儆조경 召募使 소모사,開寧使 조도사,城安都守함안군수僧運使독운사 鄭期遠정원 京畿水使경기수사 全羅水軍節度使전라수군절도사 李蘋이빈 忠淸水使충청수사,全羅水軍節度使전라수군절도사 丁傑정걸 折衝將軍첨중장군,僉一都大總管상고보공 도대선사부종樹敎保光호위대장軍수고보공 현량뇌묵虛曠처영 7장수의 배향 인물을 위한 춘향제가 봉행되었다.

헌관급 제집사진망은

初獻官 고양시의회의장 蘇詠燒소영환

亞獻官 경기도도의원 郭美淑곽미숙

終獻官 成균館館長會高陽支部長 宣鎭遠선호승

보성선씨 풍양조씨 황주변씨 전주이씨 압해정씨광묵당대선사

監祭 충장사재전위원장 이충구

大祝 成均館 典儀 兼 典禮院 權鳥澤

執禮 幸州鄕校有司 李瑞榮

執禮補說 韓英愛

〈정리 권정택 (추일공파)〉